

전북중앙

2023년 9월 4일 월요일 008면 사람



전주대-전북시민대 평생학습 협약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전북 시민대학' 부안 캠퍼스 운영을 위해 부안군, 비전대, 예수대와 함께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31일 부안군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과 대학, 그리고 대학 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도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시민대학은 전북 평생교육을 재구조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체제로, 현재 군산·익산·진안·부안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황희원기자



부안군과 3개 대학이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 제공

부안 전북시민대학 ‘권소시업 구축’

군, 3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평생학습·물적 지원 등 ‘합심’

전북 부안군과 3개 대학(전주대, 비전대, 예수대)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해 8월 31일 군청에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한 권소시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교가 협업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등 부안만의 평생학습을 조성하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식에 참가한 3개 대학교 총장단은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부안군과 함께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민들에게 우수 교수진을 활용한 양질의 교

육 제공과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평생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구축과 주민의 삶과 학습 통합을 위한 일에 지역의 우수대학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부안군과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사업은 전북도가 정부의 ‘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추진에 맞춰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 협업을 통해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부안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부안군과 3개 대학(전주대, 비전대, 예수대)이 지난달 31일 군청에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부안군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힘모아'

부안군 - 3개 대학,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 컨소시엄 MOU

부안군과 3개 대학(전주대, 비전대, 예수대)이 지난달 31일 군청에서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교가 협업,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인적·물적자원 지원 등 부안만의 평생학습을 조성하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3개 대학교 총장단은 "대학의 우수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부안군과 함께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민들에게 우수 교수진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평생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구축과 주민의 삶과 학습 통합을 위한 일에 지역의 우수대학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부안군과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 사업은 전북도가 정부의 '5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추진에 맞춰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협업을 통해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부안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봉 기자



부안군이 전주대·비전대·예수대와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3개 대학, 전북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협약

부안군과 전주대, 비전대, 예수대 등 3개 대학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 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안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교가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인적, 물적자원 지원 등 부안만의 평생학습을 조성하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

협약식에 참가한 3개 대학교 총장단은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부안군과 함께해 지역민들에게 우수 교수진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지역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평생교육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주민의 삶과 학습 통합을 위한 일에 지역의 우수대학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

게 생각한다”며 “부안캠퍼스 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부안군과 지역대학의 협업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운영 사업은 전북도가 정부의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추진에 맞춰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협업을 통해 평생학습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부안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 시민대학 공모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방선동 기자